

世界史教育和 國際理解

尹 世 哲

(歷史教育科)

1. 머 리 말

1949년 새 教育法이 공포되어 中·高等學校 社會生活科教育課程 中 歷史部分에 世界史가 등장 한지 30년이 지났다. 여기에서 종래 “이웃 나라의 생활”이란 東洋史 부분과 “먼 나라 생활”이란 西洋史 부분을 통합하여 “다른 나라의 생활”이란 이름으로 世界史的인 내용을 다루도록 하였다. 그 후 수차에 걸친 조정 끝에 1979년 單一化된 國史와 世界史 교과서의 완성을 보았다.⁽¹⁾

그 동안 내용에 있어서 東·西洋 비중의 균형화, 政治史 중심에서의 탈피, 中·高等學校 世界史教育의 目標및 내용에있어서의 차이를 의식한 점, 內容의 體系化 등에 괄목할 만한, 개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世界史가 하나의 독립된 學問의 分野 (discipline)이나 하는 원칙적인 문제밖에도 統合된 世界史的 接近의 필요성, 國史教育의 強化라는 입장에서 생기는 均衡의 문제, 內容선정의 기본입장 등에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²⁾ 우선 世界史的 接近의 필요성, 世界史 分野의 연구업적, 및 世界史 內容의 중심 概念, 또는 一般化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2. 世界史的 接近의 必要性

20세기에 접어들어 세계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큰 變化를 경험하였다. 한스 콘 (Hans Kohn)이 지적한 대로 世界史時代(the era of grobal history)⁽³⁾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는 近數世紀間 世界史的 큰 사건이 대개 西歐勢力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2차 대전 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新生 開發途上國의 탄생으로 歷史는 새로운 挑戰者를 맞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새 도전은 20세기 전반까지 비교적 잘 均衡을 이루었던 歐州中心의 世界秩序에 轉換期를 마련하였다. 이 世界時代로의 전환은 동시에 세

(1) 1963년은 社會科로 統合, 1968년 世界史와 國史로 분리, 1974년 國史教育強化, 1979년 國史와 世界史를 각각 단일 교과서로 분리하였다. 李元淳(外) 歷史教育, 1975, 韓國能力開發院 pp.95-101 참조

(2) 歷史教育研究會, “歷史教育심포지움”, 歷史教育(19輯 1976) 참조.

(3) Hans Kohn, *The Age of Nationalism: the First Era of Grobal History*, Evanston, Harper, 1958, p.127이하

로운 危險과 約束을 수반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이후, 2차대전 직후에 있었던 美·蘇를 頂點으로하는 兩極化 현상은 점차 多極化 현상으로 바뀌면서 많은 신생국은 여러 불력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國家利益에 따라 행동하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물론 이들은 自國利益을 강제하기 위한 강대국의 책동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自救策을 쓰는가 하면, 신생국 자체끼리의 敵對行爲도 빈번하여 局地戰爭을 유발할 가능성은 常存하고, 이는 곧 國際的緊張을 가져오는 불안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생국이 당면한 문제는 國家建設에 있어서 內的統合의 어려움이다. 異質의인 人種 宗教 및 社會 文化 그룹을 統合하여 高度의 統合社會를 형성하는나의 여부는 모든 신생국가의 死活이 달린 문제다. 文化, 人種의 측면에서 單一性을 가진 국가라 할지라도 傳統社會에서 近代社會에로의 전환에 國家의 統合과 安定의 유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問題點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西歐의 民主主義의 궤적을 경험하게 되고 內戰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반면 國際協力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2차대전 이후 國際社會의 특징의 하나가 되었다. 우선 國際聯合은 당초 창설목적이나 역할에 상당한 變質을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史上 가장 성공적인 國際的 協力機構로, 그 산하 機構의 活動도 人類相互利害增進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非軍事的 地域的 協力體의 구성도 국제협력의 긍정적인 측면이다. 歐州共同體의 성립은 과거 그 지역내의 숙명적 정치적 대립을 해소하고 경제적 협력에서 정치적 통합까지도 모색하게 되었고, 東南亞國家聯合(ASEAN)도 그 구성국이 전자와는 달리 開發途上國간의 협력체이기는 하다. 그 지역의 利益保護와 經濟協力を 통하여 점차 정치적 통합까지 전망하는 것은 유사한 경우라고 하겠다.

美·蘇 양국의 경우에도 과거와는 달리 自國의 理念이나 體制의 확대를 위한 外交的 接近方法을 바꾸어 理念이나 體制가 다른 國家와 文化的交流등을 통한 접촉은 國際協力の 긍정적인 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후르시초프 이후, 소련은 레닌의 共產主義的 福音傳播나 스탈린主義의인 힘에의한 사회주의 수출을 지양하고 개발도상국과의 비정치적 관계의 심화는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하겠다.⁽⁴⁾ 미국 역시 근 30년간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中共과 國交를 수립한 것은 그것이 國際政治에서 現實性의 인정이라는 소극적인 해석을 내릴 경우라 할지라도 國際協力の 擴大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 최근 冷戰을 종식시키기 위한 兩國間의 解冰政策은, 그 결말이 불투명한 것이나 긴장완화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물론 최근 몇년간 產油國을 비롯한 資源民族主義 현상이 두드러지게 표면화되고 經濟的 南·北의 대립과 非同盟을 포방하는 第三勢力의 등장은 그 자체내에 協力과 葛藤이라는 相反된 요소를 내포한 불투명한 것이기는 하지만 世界歷史時代의 강력한 세 요소로 등장한

(4) Ibid. p. 127.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世界史時代의 중요한 한 특징은 汎世界的 相互依存度の 深化라는 측면이다. 近代 科學技術의 발달은 現代的 交通 通信의 발달을 가져와, 과거 고립되고 폐쇄되었던 국가나 大陸이 이웃이 되었다. 서로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환경의 결과로 발전해온 相異한 社會制度는 빈번한 접촉을 통하여 相互間의 영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예컨대 이 때까지 목축 중심의 이슬람 세계가 복잡한 西歐의 經濟機構와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經濟活動도 自給自足에서 전문화로 변화하여, 近代產業은 원거리의 資源의 수입에 의존하고, 반대로 생산품은 수출해야 하는 것이 生理化하였다. 그 결과 市場은 世界的인 범위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世界市民이라는 표현은 과장일지라도 世界構成員의 하나임이 명백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地球라는 전체속에 각기 하나의 무대가 되어 他國家나 지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世界는 분명히 좁아졌다. 그러나 이를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더욱 어려워, 다루기 힘들어져가고 있다. 古代, 中世, 및 近世가 공존하는 듯한 세계 속에서 고도로 정밀화한 현대기계와 手工業이 상호 적응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속에 民主主義의 개념도 많은 상반되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계 어느 곳도 24시간권 내에 들어있고 어떤 共產國家나 獨裁國家도 自由思想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도 전염병, 무지, 不寬用 등 부정적 측면에서 무뎌지지 않을 수는 없다. 科學技術의 합리적인 사용과 敎育을 통하여 無知와 貧困은 극복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게 다른 文化의 價値體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타인과 그들의 문화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이해하고 그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물론 서로 다른 歷史와 文化環境에서 오는 概念的 間隙(conceptual lag)을 극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만 社會, 企業, 知識, 및 政治的 에리뜨는 그들의 國境을 넘어 超國家的인 차원에서 공통된 이념과 견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아프리카의 知識人들은 자기 고향에서 보다, 런던, 뉴욕, 파리 등지에서 더 친숙함을 느낀다.⁽⁵⁾ 이들 새로운 사회계층은 근대화 과정에서 內國에서의 傳統性에 도전하면서 國外的 동류 계층과 더불어 새로운 國際秩序의 模型을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⁶⁾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앞서 지적한 바와같이 國際的 경향에 따른 相互 依存性의 深化란 현실 앞에 우리와 다른 社會制度和 文化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理解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일층 승화된 단계로서의 國際的 協助와 共同繁榮의 모색의 기본방향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곧 過去 人類生活에 대한 世界史的 이해라는 歷史

(5) James M. Becker "Conceptual Lag and the Study of International Affairs", James M. Becker et al. *International Dimensions in the Social Studies. (NCSS 38th Year Book)*, Washington D.C. 1968.

(6) S.N.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N.J. Prentice-Hall Inc. 1966, pp.18-19.

의 인식과 역사 교육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3. 世界史叙述과 그 問題點

世界史時代의 시작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世界 各國家나 民族의 相互依存度를 深化시킴으로서 他文化에 대한 理解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는 世界史 教育에도 큰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西歐歷史가 本質的인 것이고 기타 亞·阿歷史나 南美 諸國의 歷史는 周邊的인 것이라고 하는 神話가 깨어진 것이다. 종래 世界史라고 하면서도 기껏 西歐世界의 外延의 擴大라는 낙관적 立場에 있었던 랑케(Leopold von Ranke)나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立場에 異變이 온 것이다.⁽⁷⁾ 한 民族을 代表로 선정하여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世界文化를 파악할 수 있다는 前提아래 英國을 模型國家로 생각했던 버클(Thomes H. Buckle)의 견해는 빛나갔다.⁽⁸⁾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남”에 관심을 높였다. 또 시간적으로도 더 긴 기간의 인류역사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공간적으로도 西歐에서 이때까지 소홀하였던 非西歐地域으로 확대되었다.⁽⁹⁾ 1960년대에 들면서, 분량면에서 빈약하였음은 물론, 학생을 위한 교육적 가치나 人間共通遺産의 이해라는 立場보다는 항상 國家利益과 관련하여 敵이나 友邦이나하는 立場에서 취급당하던 非西歐 歷史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非西歐社會에 대한 人類學的 關心은 “our Western culture is the culture, their non-western culture is a culture”라는 觀點에서 벗어나 世界普通的文化라는 측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¹⁰⁾ 西洋歷史는 우월하고 그 들이 한 모든 일은 自然스럽고 正當하고, 道德的이며 반대로 非西歐人의 歷史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異質的이고 野蠻스럽고 不道德하다는 식의 人種主義的 發상이 그릇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性相近, 習相遠의 원리가 世界文化를 이해하는 데 적용된 셈이다.

新生國家의 탄생과 그 들이 차지하는 國際社會에서의 비중은 歷史研究에 새로운 展望을 갖게 한다. 中等教育에 있어서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다. 학생들은 非西歐社會의 歷史에 대한 관심과 西歐歷史中心의 종래 세계사 교육, 그리고 國史教育의 強化라는 제요구에 균형을 잡으며 人間社會의 繼續性和 變化, 人間制度의 劃一性和 多樣性, 人間社會의 고질적 問題點과 人間生活의 改善 등 제문제에 광범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문제의 이

(7) Ranke는 기독교의 보편화와 Toqueville은 서구, 특히 미국적 민주평등의 확대를 예견하였다. L. Ranke, *Weltgeschichte*, de To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참조

(8) T.H. Buckle, *History of Civilisation in England*, 1857, 참조

(9) Allan Nevins, “The Explosive Excitement of History”, *Saturday Review*, 51:13-15, 62 (April 6, 1968).

(10) Seymour H. Fersh, “Studying Other Culture: Looking Outward is ‘In’”, James M. Becker et al. op cit.

해를 위하여 教科書, 또는 學習內容에 있어서의 西歐・非西歐 歷史의 균형있는 安配는 世界史 教育을 위하여 가장 重要的 一면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서 世界史教育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內容上의 量的 均衡을 찾는 것은 世界史的 內容 개선의 일부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地域 또는 國家的으로 多樣的 歷史를 어떠한 方法으로 體系化 내지는 組織化하여 學生들로 하여금 人間社會의 統一性和 多邊性的 요인에 보다 낫은 이해를 갖게 하며, 다른 文化的 本質을 파악하고 聯繫性和 相互依存性을 파악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世界史가 各國史의 개별적 組合은 아니다. 世界史는 적어도 그 觀點에 있어서 世界的이고 統一的인 면서도 文化 또는 文明의 多邊性的 統一的 理解에 留意하여야 하는 普遍史的 性格을 띠어야 할 것이다. 액톤(Lord Acton)의 말과같이 普遍史는 단순히 모든 나라 역사를 합친 것이 아니고 全體의 계속적인 발전과 精神에 대한 照明이며, 國家는 상위질서의 연속, 즉 세계사를 위한 補助役이고, 따라서 보편사는 人類의 共同福利 증진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¹¹⁾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普遍史를 쓴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普遍史 또는 世界史를 특정지우는 역사의 광범한 一般化가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歷史家를 포함한 어떤 學者도 人類歷史를 실득력있게 統一的 全體로 다루는데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적합한 자료의 부족과 學者들의 歷史에 대한 관점과 교육내용 때문이다. 원래 歷史는 주로 그 관심의 대상이 地方, 王朝, 國家가 중심이 되어왔고, 普遍史의 서술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것도 많은 부분이 정통적 歷史家가 아닌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東・西洋을 막론하고 新生國家의 역사를 다룰 수 있는 歷史 學者나 그 밖의 學者가 절대부족이라는 사실이다. 또 西歐를 비롯한 主要 文化圈을 다룰 新生國의 학문적 수준을 더욱 심각한 문제다. 뿐만 아니라 共產圈 대 自由陣營, 또는 先進國 대 開發途上國 간에 있는 대립과 이로 인한 역사 서술상 예상되는 편견도 큰 문제가 된다. 中等教育이나 大學에서 현재 世界史를 가르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大學에도 世界史科가 없고 世界史 분야의 學位도 없다는 것 또한 世界史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다.

普遍史 서술에 관한 노력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司馬遷의 “史記”, 聖・어거스틴(St. Augustinus)의 “神國論”, 볼테에르(M. Voltaire)의 “諸國民의 習俗과 精神에 관한 試論”, 헤겔(W. Hegel)의 “世界史의 哲學講義”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들은 文化, 神學 또는 哲學의 관점에서 普遍史로서의 世界史를 시도하였으나 그 서술 목표나 내용이 近代歷史學의 관점에서 역사서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11) Lord Acton, *Lecture on Modern History*, 1906 참조

世界史를 歷史學이란 독립과학의 관점에서 서술하려는 歷史家들의 노력은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활발해졌는 바, 그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다. (12)

첫째로 모든 역사를 시작에서 끝까지 적당한 시대구분에 의하여 기록없이 서술하는 종래의 양식을 지양하고 각 민족의 획기적인 사건을 주로하는 즉 編年式에서 問題 위주의 서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人類生活을 전체로 보아 일반화하였다기보다는 主要한 몇몇 국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一般化가 불가피하였다. (13)

둘째는 世界史를 유럽의 延長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접근방법이다. 서술 방향은 알려진 역사, 즉 西歐의 歷史에서 未知의 歷史 즉 非西歐人의 역사로의 확대라는 西歐의 視角에서 파악하여 西歐史가 일반화의 기초가 된다고 보았다. 西歐史의 時代區分法이 中國史나 印度史 등에 적용되는 편법이 쓰여졌다. (14)

셋째는 마르크스(Karl Marx)와 엥겔스(Fridrich Engels)의 世界史的 概念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當面한 社會問題의 해결이란 前提目標을 두고 歷史를 서술함에 있어, 주어진 理念이나 概念規範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는 소련史學이 주도한 바, 歷史發展 段階를 奴隸, 封建, 資本, 共產이라는 教條的 立場으로, 이러한 입장은 소련의 社會主義國家에도 일반적인 역사서술의 양식으로 되어있다. (15)

네째 文明의 比較史的 研究의 方法으로 文明批判의 형식으로 歷史의 型을 추출하려는 방법이다. 슈펜글러(Oswald Spengler)와 토인비(Arnold Toynbee) 대표되는 바, 이들은 自身들이 속하고 있는 社會(文明)의 생존이란 절박하고도 직접적인 관심에서 역사를 관찰한 것이다. 이들은 1, 2차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하여 주어진 문제에 답하려는 입장에서 출발하였다. 歷史란 고무나 자극보다는 實例를 통하여 공헌할 수 있다고 보아, 유럽에서는 기독교문명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普遍的 理念을 찾았다. 따라서 이들은 종래의 國家中心의 歷史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물론 이들의 접근방법이 實證과 論理를 무시하는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人類全體를 歷史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12) 이 이하는 C.E. Black, *The Dynamics of Modernization: A Study in Comparative History*, Evanston, Harper, 1968의 pp.175-186을 참조.

(13) 여기에 해당하는 책으로는 Louis Halpen과 Philippe Sagnac, 편집 *Peoples et Civilisations* 시리즈, 20권, (1926~46) Walter Goetz 편집 *Weltgeschichte: Völker, Männer, Ideen*. (2권 1939);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12, 1957~); J.H. Plum 편집, *History of Modern Society* (1965~); Jacques Pirenne편집, *Les Grands Courants de l'histoire Universelle* (7권, 1945~56); Fritz Kern(外)편집, *Historia Mundi* (10권, 1952~61); J.R von Salis: *Weltgeschichte der neuesten Zeit* (3권 1951~60) 등이 있다.

(14) James H. Harvey, *The Ordeal of Civilization: A Sketch of the Development and World-wide Diffusion of our Present-Day Institutions and Ideas* (1926).

(15) N.A. Rozhkov, *Russian History from a Comparative Historical Viewpoint: Fundamentals of Social Dynamics*(노어의 영역임 12, 1919~26); E.M. Zhukov 권편집의 *Universal History* (노어번역임 10권, 1956~65) 등이 있다.

것이다.⁽¹⁶⁾

다섯째, 既定目標의 제시를 전제로한 世界史의 서술이다. 웰즈(H.G. Wells)의 “Outline of History”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체제나 기술양식은 고석적이고 내용은 결론과 막연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世界政府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외의 다른 世界史의 영역은 個別國家의 地位, 種族 및 宗教나 文化의 正體를 파악하는 등의 비교적 底次元에 머무는 것으로 보았다.⁽¹⁷⁾

이상 제시한 접근방법은 “世界史”에 관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어느것도 人間全體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추적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어떤 全體性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론은 명확한 普遍性과 特殊性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구명보다는 이들에 대한 막연한 희망사항 차원에 그쳤다. 그들은 여러가지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民族, 文明, 및 文化 서술상 재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었을 뿐, 세계사란 각 文化의 組合이나 國家나 文明의 歷史가 아닌, 문자 그대로 “人間經驗의 全體의 體系化”라는 측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어떤 國家의 歷史나 地域의 歷史도 世界史의 下部內容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유럽史를 다룰 때, 文藝復興, 宗教改革, 産業革命, 民族主義 등이 주는 것과 같은 통일적인 내용개념이 없다.

이렇게 歷史界에서 人間經驗의 全體性을 추구하는 世界史의 서술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서 歷史가 아닌 人間行動에 관련된 모든 學問分野의 綜合을 통한 人間經驗의 정리가 시도되었다. 특히 人類學, 社會學, 社會心理學 등 社會科學의 발달은 어떤 문제에 대한 單科의 綜合(multidisciplinary synthesis)이라는 접근방법이 도입되었다. 그 결과 역사서술에 보다 복잡한 지적훈련과 내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주된 역사적 관심 분야도 달라져, 종래 政治史 중심에서 經濟制度, 社會制度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綜合史에 관한 관심은 여러형태로 나타났다. 世界의 西歐化라는 관점에서 보편사를 시도한 루에더(Edward Fueter)의 “Weltgeschichte der Letzten Hundret Jahre, 1815~1920.” (1921), 쉴외더(Felix von Schroeder)가 편집한 “Weltgeschichte der Gegenwart”(1962~3) 등이 있다.

가장 포괄적이고 상세한 世界史 서술을 시도한 것은 맥네일(William H. McNeill)이다. 1963년 편찬된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the Human Community”에서 그는 人間歷史를 다양한 文化 또는 文明 간의 부단한 交互作用으로 보았다. 그는 토인비의 각문명이 독자적 역사를 갖는다는 관점과 슈팽글러의 循環論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世界史를 獨

(16) Heinrich Rückert, *Lehrbuch der Weltgeschichte in Organischer Darstellung* (2권, 1857); O. Spengler, *Der Untergang des Abendlandes* (2권, 1918~22); A.J. Toynbee, *A Study of History* (12권, 1934~61) 등이 있다.

(17) H.G. Wells, *Outline of History* (1920); Hendrick von Loon, *Story of Mankind* (1922) 등이 있다.

立된 文明의 興起, 隆盛, 沒落이 아니라, 多様な 文明間의 간단없는 交互作用으로 파악하였다. 역사를 比較史的 이라기 보다는 傳播論의 立場에서 한 시대의 매력적이고 지배적인 核心文明이 他에 영향을 주는 바, 동시에 또 다른 文明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核心文明에 대응하는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한 시대가 外部로부터 침략이나 文化의 침투가 이루어질 때 그지역에서는 文化型的의 부단한 融合, 同化, 混合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歷史의 中心概念은 순환이 아니라 都市性 文明勢力간의 경쟁으로, 이들 지배적인 수개의 지역이 그 시대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觀點에서 장차 亞·阿地域에서도 自由로운 獨立國家가 나와 세계지배를 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立場을 취하였다⁽¹⁸⁾ 맥네일의 역동적인 普遍史的 추구는 과거 어느 노력 보다는 世界史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노력이 UNESCO主管으로 進行되었다. 各國學者를 망라하여 編纂한 “History of Mankind” (10 Vols. 1963~78)은 과거의 文明史家들의 저술에서 다소 소홀하였던 政治, 經濟, 軍事史와 文化史 및 科學史의 均衡을 恢復하였다. 이 책의 첫 두권이 나왔을 때 통일된 展望과 解釋이 없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世界史 敘述의 進一步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이러한 논쟁의 결과로 世界史 敘述過程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판과 논쟁은 앞으로의 보다 나은 世界史著述에 큰 도움을 주게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普遍史로서의 世界史 敘述의 문제점은 이의 기초가 될 多種多様な 資料를 有意한 형태로 統制할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一般史도 特殊史의 基礎를 무시할 수 없는 한, 특수한 문제 또는 制度로서 비교적 오랜 歷史를 통하여 數個의 사회에 공통적인 것을 연구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¹⁹⁾ 戰爭, 帝國主義, 革命, 專制主義, 社會階層等 主題에 대한 광범한 比較연구는 普遍史 著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보편사 著述에 유의할 것은 西歐中心의 歷史에서의 해방이라는 觀點에 지나치게 先制되어, 世界史에서의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世界史의 接近에도 가장 공이 큰 西歐世界를 경시해서는 안된다. 발라크로(G. Barraclough)가 시도한 세계사 著述, 즉 유럽의 歷史를 의미없는 것으로 스라브나 타탈의 歷史가 本質的인 것으로 취급하는 접근법에는⁽²⁰⁾ 역시 西歐中心의 發想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아프리카의 歷史가 유럽의 歷史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일이다.

(18) William H. MaNeill, *The Rise of the West: A History of Human Commun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3; Mark M. Krug, *History and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Blaisdell Publishing Co. 1968, p.272. 참조.

(19) Black, op cit p.176.

(20) G. Barraclough, *History in a Changing World*, Norman, Oklahoma, Univ. of Oklahoma Press, 1955 참조.

4. 世界史 中心概念

現代世界的 相互依存性을 이해하는 教科內容은 그 성격상 統合的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이거나 分離的 接近(multidisciplinary approach)이다. 따라서 歷史는 현재 당면한 國際社會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분야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社會科學의 諸分野와 歷史의 內容을 學校의 教科課程에 어떤 형식으로 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따라서 國際理解라는 교과내용에 社會科學 分野와 歷史를 어떻게 안배하느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歷史的 知識이 客觀的이며 科學的 知識이냐 하는 歷史와 他社會科學의 학문 체계상의 차이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한, 教科課程의 선정에 항상 큰 문제로 남을 것이다.⁽²¹⁾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國際理解教育에 歷史的 解釋이나 歷史知識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國際理解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역사적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다. 현행 교과과정이 編年的 구성에 東·西洋史의 안배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이상, 이를 시정하는 의미에서 보다 世界史的 接近에 가까운 內容—價値, 概念, 一般化—을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능하다고 본다.⁽²²⁾

○ 歷史는 그 점차 커가는 人類集團이 동시에—커져가는 공간에 함께 살아왔음을 보여준다. 社會的 經濟的 集團이 그 규모와 특수화가 확대되는 반면 公共事業에 있어서 分業과 責任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어 왔다.

○ 人間의 부단한 協同의 결과로 文明의 質은 점차 改善되어 왔다. 平等의 具現, 商業의 擴大, 勞動의 專門化, 理念의 交流, 主權國內에서 私戰의 금지 등은 相互依存性의 인정에 기초를 둔 協同體制의 좋은 예이다.

○ 특히 15·16세기 地理上의 發見時代를 계기로 사람들의 世界的 相互依存性에 관한 視野가 넓혀졌다.

○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地球上的의 사람들은 外部의 영향에 비교적 무관할 만하였다. 中世의 서양이나, 스페인 지배하의 南美, 대부분의 東洋社會는 自給自足的 農業社會로, 村落中心의 거주환경은 인접지역 외의 他地方과의 접촉은 제한하였다. 이는 현대 모든 產業社會의 國內的, 國外的의 문제가 거의 모두 직접 간접적으로 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産業革命, 近代의 交通通信의 發達, 19세기 産業發達은 經濟活動을 地方에서 地域, 궁극적으로 世界的인 범위로 확대시켰다.

○ 近代社會의 國民國家로의 擴大發展과 거대한 植民帝國의 성장은 계속되는 廣域化속에서도 相互依存性의 심화를 인지하는 과정이 었다.

○ 個人的 價値와 尊嚴性의 인정은 희랍과 유대전통의 일부로서, 이는 西歐文化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주의적 전통은 公法이나 社會習俗으로의 具體化는 부단한 투쟁의 결과였다. 이러한 人間의 權利는 西歐民主主義의 기본이나, 현재는 많은 非西歐 여러나라가 따르고 있다.

(21) James P. Shaver & Harold Berlak eds. *Democracy, Pluralism and the Social Studies*,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68, pp.165-66.

(22) NCSS, *A Guide to Contents in the Social Studies*, Washington D.C. 1957. 참조

○ 歷史記錄은 社會變化를 자극하는데 文化移入(acculturation)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理念과 知識의 交流를 통하여 各社會의 遺産은 더욱 潤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無知를 축출하는 데 裨益 的 功 效 가 있다.

○ 歷史家의 역할이란 과거의 人間經驗의 전부를 空間과 時間이란 틀속에 조직화하는 것으로 그들은 세계인 전체 文化遺産에 관심을 가진다.

○ 普遍的知識의 습득은 르네상스學者의 理想이 있다. 그러나 近代의 學問은 속성에 따라 세분화되고 그 나름대로의 가치세계와 研究方法 및 組織方法이 있다.

○ 精神의 해방은 곧 自由를 뜻한다. 理念과 價値의 자유로운 경쟁은 상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공개적이고 경쟁적 시장과 유사하다. 自由理想과 自由經濟는 相補的이다.

○ 사람에 관한 적합한 연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20세기에 들면서 人間의 知慧는 建設的 일과 동시에 파괴적 일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心理의 연구가 활발하다. 人間행동양식의 이해를 위하여 지식의 효과적인 이용이 요구되어 왔다.

○ 一夫一妻制는 서양 가족제도의 전통이지만 一夫多妻도 역사적으로 沈在하여 왔다. 前近代社會에서는 勞動力을 기준으로 男性優位가 一般的인 현상이었으나 近代 이후 女性의 平等權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모든 地球上의 사람은 時·空을 초월하여 倫理基準과 精神의 價値를 發展시켜 때로는 이들이 宗教의 형태로 나타났다. 原始宗教에서 체계화된 近代宗教에 이르기까지 宗教의 관심은 善惡, 正誤, 倫理的인 것과 非倫理的인 것을 가려내는데 힘썼다.

○ 代表的인 世界의 宗教는 그 儀式과 形態가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유사한 가치관을 가진다.

○ 위대한 文化를 發展시킨 사람들은 대개 自然의 힘을 숭배하던 精靈崇拜에서 人間社會에서 필요한 道德的 精神의 가치를 발전시켰고, 超自然의 神性을 담은 哲學的體系를 가진 종교 또는 倫理體系를 발전시켰다.

○ 각 文化의 기본적 精神價値 또는 倫理는 대개 종교에 근원을 둔다. 西洋의 기독교적 전통과 東洋의 儒敎의 전통, 印度의 힌두敎의 전통은 모두 이를 보여준다.

○ 社會市民의 倫理와 宗教의 도덕 및 精神價値의 융화는 文化圈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近代이후 서양에서 시작된 人間性(Humanity)에 대한 강조는 가치와 도덕의 世俗化와 多元化를 촉진하는 근대화 과정의 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 産業革命 이후 都市化 現象의 진전에 따라 宗教集團이나 地域社會의 倫理敎育 면에서의 역할은 약화되고 家庭의 敎育의 機能도 변하여 倫理基準이나 道德的價値의 다원화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價値의 葛藤이란 심각한 現代社會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 現代 學校에서 道德 및 價値敎育은 世俗的인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는 宗教와 國家의 분리라는 헌법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

○ 사람이 集團, 地域社會, 또는 國家란 형태로 衆集生活을 하는 경우는 그들의 安全과 秩序 유지를 위하여 規則 또는 法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은 고대의 복수주의 원칙에서 위반자의 再敎育이란 경향으로 司法의 내용이 달라졌다.

○ 로마와 英國法에서 기인한 法治主義, 中國에서 발달한 人治主義 원칙등 접근 방법이 다르나 近代産業社會의 통제수단으로는 法治主義의 경향이 강하다.

○ 歷史적으로 國家權力의 작용형태는 分權的인 것과 集權的인 것이 있는데, 近代 이후 中央集權的인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政府는 국민에 대한 強制에 있는 바 그 역할은 法秩序의 維持, 小數民族의 보호, 國民의 分權 해결 및 權益保護 등이다.

○ 政府의 構造와 統治형태는 時代와 지역에 따라 다르나. 民主主義에로의 傾斜가 現代세계가 지향하는 바다. 그러나 民主主義의 정의는 文化, 政治의 전통에 따라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 平等主義의 실현은 各國家의 과제이나 社會階層의 존재는 어느 時代 어느 社會에도 있었고 현금도 존재하고 있다.

○ 時代와 場所에 따라 사람들은 취득이 가능한 서로다른 資料를 택하였다. 木炭사회, 농업사회, 산업사회 등은 그 결과에서 나온 형태의 좋은 예이다.

○ 産業革命은 어떤 歷史的 事實보다도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기계화, 노동시간의 단축, 물리적 풍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도시화 노동문제 공해 등, 부정적인 면도 많다.

○ 産業社會로의 발전은 經濟的 측면에서 國際的 協力の 필요성을 심화시켜가고 있다. 資源과 工業技術의 불균형이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 웨스트파리아 條約 이후 國際關係는 勢力均衡이란 새 외교원칙이 탄생하였다. 이는 同盟과 同盟關係의 破棄를 통하여 한 세력의 과다한 팽창을 막는 수단이 되었다.

○ 국제간의 균형유지와 전쟁방지의 목적으로 國際機構가 설립되었다. 國際聯盟, 國際聯合의 탄생은 그 예가 된다.

○ 文明의 生存期間을 따지는 것은 歷史家나 哲學者의 문제다. 歷史는 變幻한 것으로 大變化도 그 先行事의 연장이다. 따라서 歷史에서 革命이라 칭하는 사건도 사실상 歷史의 進展에 불과하다.

○ 産業革命은 人類社會,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부정적인 요인때문에 “좋았던 옛날”을 말할 수는 있겠으나, 歷史의 方向을 돌려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變化와 安定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5. 맺 음 말

中等教育에서 世界史의 필요성은 社會科의 관점에서는 國際社會의 理解라는 分科(multidisciplinary)의 일부로서 필요한 분야요, 歷史 自體의 立場에서 보면 과거 全體人類의 경험에서 리듬이나 통일성을 찾아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아직도 世界史 서술의 기본적 구조가 파악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東·西洋에 관한 내용의 안배라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世界史 서술의 기본구조를 추출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解決이 선결조건이지만, 주어진 연구 성과를 통하여 제한된 개선이 가능함을 인정하여야 하겠다. 이는 教科書 내용에서 統一的인 時代區分의 개념도 없이 세계의 역사를 編年史的으로 적당히 배열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은 최소한 인식하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歷史學者는 대부분이 普遍史(macrohistory) 보다는 特殊史(microhistory)에 더욱 친숙할 뿐만 아니라, 現實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歷史研究의 성과를 이용한다기 보다는 歷史學(historiography)의 입장에서 歷史教育에 임할려는 입장 때문에 전통적인 역사교과 내용과 편제에 별 이의를 갖지 않는 것도 世界史教育을 개선하는데 문제점의 하나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中等教育에서 歷史教育이 담당하는 것은 歷史學에 대한 이해보다는 歷史로서 배운다는 입장이 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世界史의 내용도 年代記的인 詳述 보다는 主題나 地域 또는 領域을 중심으로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西洋中心의 역사에서 그 범위를 세계 전체로 돌려, 우선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한 뒤에 일반화를 시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地域史研究(area studies)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미비하나마 世界史的 觀點에서 서술한 저서에 대한 이해는 世界史 敎育의 발판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특정한 국가의 歷史가 특별히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세계의 상호 의존성으로 보아 世界史的 접근은 適宜한 것이다.⁽²³⁾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더 두꺼운 보편성과 공통성을 간과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되겠다.

(23) W.H. Burston, *Principle of History Teaching*, Methuen Educational LTD, London, 1972, pp. 66-167; John Chaffer & Lawrence Taylor, *History and the History Teaching*, London, Ruskin House, 1975, p. 30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the Education of World History

Sei-chul YUN

Abstract

Some criticisms and problems, evolved by world history as a secondary school curriculum, is nothing new.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the international age that forces us to have a keen sense of ever increasing international interdependency among the peoples, comparing with other fields of education, the sphere of teaching world history has been far behind for the last three decades.

Some historians and philosophers have tried to describe, analyse, and identify the main features of universal history (world history), and thus to evolve some ideas about the nature of particular civilization and universal aspects of human life that are shared by all peoples throughout the history of mankind. Thus far, there is, however, no consensus about what world history ought to be in terms of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s, and instructional scheme.

To improve world history teaching in the secondary school level, following issues are advanced;

1) Through the study of world history, the student ought to see the broad lines of both continuity and change in human society, the significances, uniformity, and variety among human institutions, the persistent problems faced by all human societies, and the resources for improvement in human affairs.

2) The student must recognize a greater than ever magnitude of studying world history, which is resulted from the pressure of world interdependency.

3) With emergence of the Third World, Western hegemony in the world has eroded. Therefore, we need a new world perspectives based on an equal terms between Western history and Non-western history in teaching world history,

4) We, especially curriculum makers, are recommended to be familiar with the literatures of world history which are written under the perspectives of universal history.

5) To innovate conventional world history curricular, we have to try to isolate some congruous values, concepts, and generalizations with which both the teachers and the students are more comprehensible in the area of world history.